

성령 충만으로 합당하게 하나님 섬기기

성경말씀: 롬12:1-2

지난주일 저녁 장례식, 한 자매님 교제, 롬12:1-2, 2절의 입증하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가? 연구

배경 설명

롬 16장, 1-8장은 구원과 성화, 9-11장은 이스라엘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12-16 실제 생활

롬12:1-2: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등

1절: 그러므로, 11:36에 근거, 모든 것의 근원 하나님, 사람의 존재 이유: 영광과 찬양

형제들아: 믿는 자들에게 주는 것, 믿지 않으면 1-2절 이행 불가

바울의 간청: 권면하거나 명령하는 것이 아니다. 율법은 명령, 은혜는 간청. 율법의 순종은 두려움에서,

은혜의 순종은 사랑에서 나온다(고후5:14).

간청의 근거: 하나님의 긍휼, 불쌍히 여김

간청의 내용: 너희 몸을 드리라.

몸을 드리라: '드린다'는 '내주다'(yield, 롬6:13)와 같은 말이다. 몸(고전6:19-20)

실패하고 넘어질 때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몸(우리 자신)을 드려야 한다.

희생물: 신약시대 모든 성도는 제사장이다. '자기 몸을, 자기 자신을 드리는 제사장'(롬6:12-13)

살아 있는: 그런데 그 희생물은 구약의 제물과 달리 살아 있다. 살아 있는 손, 발, 귀, 눈, 입

죽은 것은 주님께 소용이 없다. 무덤으로 간다.

살아 있을 때 몸을 드리는 것은 희생, 몸은 주님과 반대를 하려고 함. 지난 2년간 성경 교정

그런데 헌신하는 것이 구원은 아니다. 여기 대상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

거룩하다: 하나님을 위해 용도가 구별되었다.

받으실 만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희생물, 그러므로 구원받은 자들만 이런 희생물을 드릴 수 있다.

합당한: 논리적이다. 그 이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물이 되셨으므로 우리 몸을 드리는

것은 논리적으로 합당하다. 이렇게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 곧 우리의 합당한 섬김이다.

매주 예배드리러 가는 것, 수입의 10% 정도를 드리는 것 등 세상 사람에게는 불합리

마케도니아의 성도들(고후8:5)

이렇게 섬기는 것은 합당하고 논리적이다: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로 구원, 하나님의 자녀

성도들은 항상 롬12:1을 유심히 보아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다(고전6:19-20).

우리 몸을 마음대로 쓰면 안 된다.

2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대로 살고 싶다. 여기에 그 방법이 있다.

1.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라(부정적 명령).

이 세상, 요일2:15-17

사탄은 이 세상의 신이다(고후4:4; 갈1:4).

동화되다(conformed): '형태가 같게 되다'

세상이 비집고 들어와 우리를 세상과 똑같이 만들지 못하게 하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양상: 주님을 섬긴다. 단 주변 세상과 동일하게 살면서, 달리 살라고 하면 문제

우리가 이렇게 살면 마귀가 절대 건드리지 않는다.

초대 교회 성도들, 중세 성도들: 주변 세상과 달리 살았기에 고문, 박해, 목숨 잃음

이들의 죄목: '인류의 미움 덩이', "우리처럼 안 해!!" 세상 문화 오락 참여 안 함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상 숭배, 우리는 그리 안 함

세상 모든 사람들이 종교다원주의, 우리는 오직 예수

세상 모든 사람들이 행위 구원,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 모든 종교 인간 창시자, 그의 글, 우리는 오직 창조자 하나님과 성경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천명함, 그래서 미움(약4:4)

교회 성장을 위해 세상 기법 동원, 교회 세울 때 설문 조사: 세상과 동화되는 것
세상을 떠나는 것이 회개이다. 그리고 주님을 믿어야 한다.

십자가의 그리스도는 세상이 싫어한다. 만사형통의 그리스도만 원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첫째로 세상을 등져야 한다.

2. 변화를 받아야 한다(transformed)(긍정적인 명령).

변압기: 220에서 110, 110-220, 트랜스포머

이런 변화는 구원받는 순간 이루어지지 않고 상화 과정을 거치며 나타난다.

여기와 고후3:18에서 이 단어는 성도들이 주님과 닮아가는 변화를 뜻한다.

고후3:18에서는 성령님의 사역에 의해, 즉 성령 충만에 의해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에 동화되어야 한다(롬8:29). 이 일을 꾸준히 계속해서 해야 한다.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엡4),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까지(요일3:2)

그런데 이런 변화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다.

그러면 이런 변화는 어떻게 가능한가?: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구원받으면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과 생각이 주어진다. 그런데 대개 그것을 쓰지 않는다.

우리의 도덕적/영적 비전과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되게 바꾸는 것

하나님의 생각 자체가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친다.

하나님의 생각을 알려면 성경을 읽고 공부해야만 한다.

3. 세상과 등지고 생각이 변화되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실천할 수 있다.

여기의 뜻은 하나님의 드러난 뜻을 말한다.

계시되지 않은 뜻을 알려고 시간 낭비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뜻은 1. 선한 뜻, 2. 받으실 만한 뜻, 3. 완전한 뜻

a. 선한 뜻: 죄 짓지 않고 바르게 사는 것, 그리스도인의 최소한의 의무

그런데 죄짓지 않고 선하게 사는 것에는 보상이 없다(눅17:10).

실제로 주님께 행하는 것은 없다. 미지근한 그리스도인

b. 받으실 만한 뜻: 1번 이상으로 주님을 위해 일한다.

하나님이 받아주신다. 보상이 있다.

c. 완전한 뜻: 모든 그리스도인이 여기에 다다르려고 노력해야 한다.

하나님의 때, 방법, 장소 등 완벽하게 주님의 일을 한다. 큰 보상

결론

1. 세상과 동화된 그리스도인: 대표적인 사례가 소돔과 고모라의 롯, 보상 없음

2. 조그만 보상을 받는 그리스도인

3. 충분한 보상을 받는 그리스도인(요일8)

4. 변화되는 그리스도인은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려고 노력한다.

입증하다: 시험해서 찾아내는 것, 예언 기도로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다.

즉 검증하고 분별하는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능하다.

5. 성공한 인생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뜻을 검증하고 그대로 사는 것

여기에 실수와 시행착오가 있다. 그러면서도 위로 올라가는 것

"나는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원하는 것 바로 그것을 원한다." 성경을 통해